그대는 자비보살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

노인복지 20년…“맘껏 일하고 후련하게 떠납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정관 스님은…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으로부터 1986년 사미니계를, 1990년 구족계를 수지하고 2015년 명덕 법계품수했다. 중앙승가대서 사회복지학으로 1995년 학사를, 2015년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조계종 제 17·18대 중앙종회의원, 조계종 승려복지회 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전국비구니회 서울시지회장, 서울시 국가유산위원 동산불과 위원 소임을 맡고 있다. 서울 소림사 주지다. 법무부장관 표창(2010), 대한민국 국회의장 공로장(2017), 국무총리 표창(2021), 제53회 어버이날 기념 대통령상 표창(2025), 제27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복지기여자 국회의장 공로장(2025) 등을 수상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6월 30일 퇴임
‘종로엔 장금이’ 등 지역 복지모델 정착
“밥 먹는 곳 넘어 문화·역량 발휘 공간”
어르신 주체 공동체 살아 있는 복지관
“이젠 청년 함께하는 소림사 만들 것”

“후회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하고자 했던 일들을 모두 펼쳐봤기에 이제는 아주 후련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서울 도심 노인복지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2007년 개관부터 20년간 복지관을 이끌어온 정관 스님이 오는 6월 30일 관장직에서 퇴임한다. 초대 관장으로 부임해 복지관의 역사를 써내려 온 정관 스님은 ‘어르신이 주체가 되는 복지’를 실현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노인복지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6월 5일 관장실에서 만난 정관 스님에게 퇴임을 앞둔 소회를 묻자 “섭섭함보다 후련함이 크다”고 했다. “정말 마음껏 일했고, 마음껏 도전했다”는 스님의 말에 20년 세월을 온전히 복지 현장에 바쳐온 수행자의 담담한 자부심이 묻어났다.

정관 스님이 처음부터 노인복지를 꿈꿨던 것은 아니었다. 출가 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했지만 특정 분야를 정해두지는 않았다. 다만 “수행은 평생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는 기회가 있을 때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회복지길에 들어섰다.

졸업 후 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에서 3년을 활동한 경험은 스님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이후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개관을 앞두고 뜻밖의 전화 한 통이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당시 조계사 주지였던 원담 스님은 비구니 복지관장을 추천받기 위해 한 스님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번호가 잘못 눌려 정관 스님에게 연결된 것이다. 전화를 받은 스님은 “저도 있습니다”라고 답했고 그렇게 지원해 면접 기회를 얻었다. 정관 스님은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한 인연”이라며 웃었다.

스님은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을 ‘문화와 공동체가 살아 있는 복지관’으로 발전시켰다. 스님이 복지관 운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가치는 ‘지역성’과 ‘문화’였다. 노인복지관이 단순히 어르신들만 모이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결돼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그 고민 속에 탄생한 대표 사업이 전통 장(醬) 문화를 기반으로 한 노인일자리 사업 ‘종로엔 장금이’다. 먼저 지역 어르신들이 가진 삶의 경험에 주목했다는 정관 스님은 “종로의 문화적 뿌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장 담그기를 떠올렸다”며 “어르신들이 어릴 적부터 몸으로 익혀온 전통문화를 복지와 연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기에는 자원봉사 형태로 시작했지만 이후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발전했고, 지금은 지역 주민과 젊은 세대가 함께 찾는 체험 프로그램으로도 자리를 잡았다. 명절 시즌이면 높은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지역 대표 브랜드로 성장했다.

대학로와 가까운 지역 특성을 살려 연극으로 차별화를 시도한 ‘서울시니어연극제’ 역시 정관 스님의 대표적인 문화복지 실험으로 꼽힌다. 어르신 극단 ‘빨래터’는 전문 배우 출신 어르신과 초보 창작자들이 함께 활동하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일부 단원은 실제 방송과 광고에도 출연하며 새로운 삶의 무대를 넓혀가고 있다.

이밖에도 친환경 실천사업 ‘에코스쿨’, 플러스카페 운영 등은 전국 노인복지관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다.

정관 스님은 “처음엔 지역과 연결되는 복지가 무엇일까 고민했다”며 “이제는 복지관이 단순히 밥 먹는 곳이 아니라 문화와 여가, 역량 발휘의 공간으로 변화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개관 초기 50여 개 수준이던 프로그램을 현재 90여 개 이상으로 확대했다. 최근에는 K-댄스, 마술, 선명상 프로그램까지 개설하며 변화하는 노년 세대의 욕구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제안하면 일정 인원이 모일 경우 즉시 개설하는 ‘희망수업 제작소’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정관 스님은 무엇보다 “어르신이 주체가 되는 복지관”을 가장 큰 변화로 꼽았다. 과거 복지관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줄 서서 밥 먹는 공간으로 인식됐다면 이제는 어르신 스스로 문화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공동체를 이끄는 주체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보여준 대응 역시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의 저력을 보여준 사례로 남는다. 국내 노인복지관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발생했지만 철저한 방역 시스템과 선제적 휴관 조치로 추가 확산을 최소화했다. 이후 구축한 비대면 프로그램과 방역 체계는 세계보건기구(WHO)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고, 해외 기관들의 견학도 이어졌다.

정관 스님은 “남들은 위기를 만나면 주저앉기도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만들었다”며 “그 시간을 통해 복지관 시스템과 직원들의 역량도 한층 더 단단해졌다”고 회상했다.

정관 스님의 리더십은 직원들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초창기부터 함께한 직원들이 지금도 복지관의 중심을 지키고 있다. 스님은 “직원들이 성장한 것도 큰 보람 중 하나”라고 했다.

퇴임 이후 정관 스님은 조계종 직할교구 소림사 주지 소임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그렇다고 복지 현장과의 인연을 완전히 놓지는 않을 생각이다.

정관 스님은 “이제는 본분사로 돌아가 기도와 수행에 집중하겠지만, 지역사회와 복지관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계속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상명대 불교동아리와 청년 포교 활성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소림사에서는 상명대 학생들이 목요법회와 공부 모임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험 기간에는 사찰 공간을 개방해 공부방 역할도 하고 있다.

정관 스님은 “요즘 청년들은 단순 법문보다 쉼과 명상, 그리고 공동체를 원한다”며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마음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소림사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사찰 식당 리모델링을 통해 사찰 음식 프로그램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템플스테이와 청년 프로그램 확대도 구상 중이다.

정관 스님의 20년은 복지 행정의 시간만이 아니었다. 어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연결하며 불교 자비정신을 삶 속에서 실천해온 시간이었다. 복지관을 떠나는 순간에도 스님의 시선은 여전히 사람과 공동체에 향해 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피워낸 따뜻한 변화의 씨앗은 이제 소림사라는 또 다른 공간에서 새로운 인연과 희망으로 다시 뿌리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



2007년 3월 21일 열린 개관식 모습.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복지관 임직원들에게 어르신들이 천수를 누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종로엔 장금이’ 전통 장 담그기 사업은 2013년 시작됐다. 단순 체험을 넘어 어르신 일자리와 세대 통합, 전통 식문화 계승을 함께 담아낸 프로그램으로 발전했다.



정관 스님은 지난해 5월 8일 어르신들의 삶의 질 상승을 위한 노인복지 서비스 품질 향상에 매진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Where is your mind?

낙산 묘각사 템플스테이

Myogaksa Templestay

도심속 사찰에서의 템플스테이

한국의 전통불교문화를 체험하며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



mygaktemple@naver.com
서울 종로구 종로63가길 31, 낙산묘각사
☎ 02.763.3109